

# 김오진 1차관, 26일 우크라이나 총리실 사무차관 면담 -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활용 등 재건협력 강화 방안 논의 -

-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월 26일(목) 오후 서울에서 이호르 야레멘코 (Ihor Yaremenko) 우크라이나 총리실 사무차관(ODA, EDCF 등 투자원조 총괄 조정 업무 담당)과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  - 이번 면담은 수출입은행의 초청으로 방한한 이호르 야레멘코 사무차관의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, 드미트로 포노마렌코(Dmytro Ponomarenko)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도 동석하였다.
- 김 차관은 “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키이우 방문(7.15.) 및 9월 민관협력대표단 (단장: 국토부 장관)의 키이우 방문(9.13~14) 등을 계기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 참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”이라며,
  - “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, 국토부의 국토교통 분야 공적개발원조 (ODA) 등을 활용하는 협력사업을 조속히 발굴하여 협의해 나가자”고 제안하는 한편,
    - “국제기구, 제3국이 지원하는 사업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”을 요청하였다.
  - 이에, 야레멘코 사무차관은 “우크라이나 정부의 5대 우선순위인 인프라 재건, 에너지, 주택, 지뢰제거, 중소기업육성 분야에 한국이 강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, 한국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”고 밝혔다.
- 또한, 야레멘코 사무차관은 “우크라이나는 재건사업 관련 협력뿐 아니라, EU 가입 시 5억명 규모 유럽 시장 진출의 거점이 될 수 있어 일반적 경제 협력 잠재력도 크다”고 강조하였고,
  - 김 차관은 “우크라이나의 높은 잠재력을 잘 알고 있다”며, “양국 간의 실질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”고 화답했다.

- 또한, 김 차관은 “재건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정보가 부족하여, 현지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”며, “국토부가 소통창구가 될 것이니, 실무접촉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”고 당부하였고,
- 야레멘코 사무차관은 “한국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 협력에 계속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답하였다.
- 아울러, 김 차관이 재건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들과 야레멘코 사무차관 간의 면담\*을 주선한 바, 이호르 야레멘코 사무차관은 면담 주선에 감사를 표하면서 “한국 기업들과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”이라고 기대를 밝혔다.

\* (時/所) 10.27(금) 15:30 / KIND 대회의실(서울 영등포구)

(참석자) KIND, 한국공항공사, 삼성물산, 유신, KT, 포스코인터, NAVER, HD현대, 현대로템 등

2023. 10. 26.  
국토교통부 대변인